

농두밭

2020 | 겨울 | 42호

녹두칼럼

김삼웅 / 전 독립기념관 관장

참여자 유족 인터뷰

송마지·송영례 / 참여자 송상옥의
손녀·증손녀

지역대담

김정호 / 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회장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유적지 탐방

전북 완주지역 유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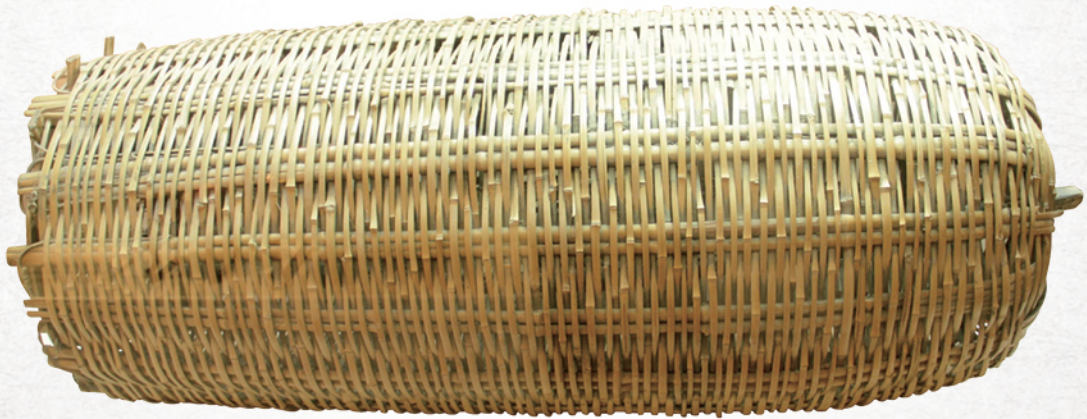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장 태



장 태 목재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장태는 농가에서 닭을 키울 때 사용하던 '닭의 집'이다. 무기가 변변치 못했던 동학농민군은 대나무를 깎아 죽창을 만들거나 각종 농기구 등을 활용하여 전투에 나섰다. 장태는 그중 하나로 장성 황룡전투 등에서 장태를 개량하여 방어용 무기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적진으로 진격할 때 장태 안에 벼짚을 우겨넣고 굴리면서 전진하여 총알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였다.

목차

- 04 **녹두칼럼**
김삼웅 / 전 독립기념관 관장
- 06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5차 이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2차 자문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유족 대상 설명회
- 10 **참여자 유족 인터뷰**
송마지·송영례 / 참여자 송상옥의 손녀·증손녀
- 16 **유적지 탐방**
전북 완주지역 유적을 찾아서
- 21 **지역대담**
김정호 /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28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33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 42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 단체
- 46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전북 완주군)

임진년(1892) 1월 동학교단에서 주도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이 열린 곳이자 갑오년(1894) 9월 동학농민군이 반일항전의 가치를 들고 2차 봉기를 단행한 삼례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1996년 10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였다.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서훈해야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전근대의 철벽에서 근대의 문을 연 횃불이고, 신분해방을 천명한 권리장전이고, 반외세의 기치를 든 주권 선언이었다. △불살생 △제세안민 △왜병축출 △탐관오리 소탕의 4대강령과 △ 노비문서소각 △문벌타파 △ 토지균등분배 등 12개조 폐정개혁안은 세계 어느 혁명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는 100여 년의 시간 격차가 있었지만 목표와 지향은 다르지 않았다. 파리코뒀에 비해 53개 군현에서 실시된 집강소는 오히려 앞섰다. 1850년에 시작된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는 유사점도 있었지만 권력의 야심에 찬 홍수전과 전봉준·김개남은 격과 결이 달랐다.

1862년 진주에서 시작하여 32년간 전국적으로 확대된 70여 건의 민란은 모두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승화되었다. 신채호가 개탄했듯이 우리 역사는 창업·역성혁명·쿠데타·반란·반정이 있었으나 혁명은 없었는데, 민본(民本)의 주체인 농민이 마침내 봉기한 것이다. 외세의 개입으로 프랑스혁명처럼 국왕을 단두대에 올리지는 못하고 일본군과 250대 1 수준의 무력의 차이로 숭한 희생을 치르며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혁명의 마그마는 이후 국권회복과 민주화의 에너지로 작동되었다. 의병 → 의열투쟁 → 3·1혁명 → 임시정부 → 의열단 → 광복군 → 분단반대 → 통일정부 → 4·19혁명 → 반유신투쟁 → 부마항쟁 → 광주민주화운동 → 6월항쟁 →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면면한 민족사의 정맥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발원한다.

세계사의 암흑기인 봉건왕조시대에 동학농민혁명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족은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변혁의 가치를 모르는 저급한 종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받았을지 모른다. 동학농민혁명은 민본의 주체인 농민(어민·상인·광부·7천민 포함)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본사상에 따라 후천개벽에 나선 근대의 횃불이었다.

프랑스혁명의 주체가 농민·부르주아지·쁘띠부르주아지의 합작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은 명칭 그대로 '농민'이 주체였다. 옛적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내세우면서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여 년 전 호남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약용은 민란을 예견하면서 국정개혁의〈경세유표〉를 저술했는데, 뒷날 전봉준·김개남 등이 이 책을 보고 거사에 나섰다는 기록이 전한다. (최익한,〈실학파와 정다산〉)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1차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반부패운동이었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척왜척양의 항일구국운동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항일투쟁을 전개한 전봉준·김개남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아직도 독립유공 서훈을 하지 않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점령으로 발발하였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서 몰아내고,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면서 조선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되지 않으려면 침략자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했다.

남접의 전봉준과 북접의 손병희는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189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일본군과 일본군 편에 선 관군을 상대로 공주에서 최대의 전투(우금치 전투)를 치렀으나, 화력의 열세로 패배하였다. 12월 28일 밤에 전봉준은 체포되었다. 재판이 진행될 때, 전봉준은 “일본은 곧 우리의 적국이다.”고 말하고 ‘척왜’를 봉기 이유로 댔다. 전봉준은 4월 24일 의금부 전옥서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김개남은 재판도 없이 참수되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선다고 밝히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한 자(순국선열)”는 독립유공자가 된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1895년 명성황후 살해에 맞서 항거하다가 순국한 을미의병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전봉준·김개남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도 마땅히 서훈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개헌이 실현되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추가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3·1운동이 가능했겠는가.

김삼웅 | 전 서울신문 주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제7대 독립기념관장, 민주화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기념사업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신홍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5차 이사회



2020년 12월 14일(월) 오후 2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4기 제5차 이사회가 열렸다.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기념재단 직제규정 개정의 건, 20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의 건, 재산 관리(변동)의 건,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탁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0년 주요업무추진 현황, 특별법령 일부개정안 추진, 기념공원 자문회의의 결과 등에 대한 보고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한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곽병창(우석대 교수), 김양식(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문영식(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회장),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함기영(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진동기(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2차 자문위원회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4기 제2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202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등 재단 4기 제5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와 함께 2020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특별법령 일부개정 추진, 기념공원 조성 전시설계 자문회의의 결과 등이 보고된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명성(전 전주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용선(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김정호(변호사), 이동연(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전성진(전 전주MBC 사장), 최순삼(순창중학교 교장), 진동기(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20년 10월 22일(목)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심의위원 신영우(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이재운(전주대 교수)·최민자(동학학회 회장), 김영옥(행정안전부 사무관,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대리참석) 등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을 신청한 26건을 심의하여 참여자 11명, 유족 135명을 인정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2020년 9월 22일(화)과 10월 15일(목)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경 및 야외 전시콘텐츠 구성방안과 기념공원 내 추모관 및 전시장 콘텐츠 구성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제1차 자문위원회에는 역사분야 신순철(前원광학원 이사장, 원광대 사학과 명예교수)·신영우(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경분야 김세천(전북대 조경학과 교수), 참여자 유족 정해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김용선(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제2차 자문위원회에는 문화예술분야 김은정(전북일보 선임기자, 前전북일보 편집국장)·이기홍(前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디자인분야 윤현식(전남대 경영전략디자인마케팅 조교수)·송광철(호남대 공공환경디자인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대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2020년 11월 17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영채(경기 고양), 최정길(경기 성남), 함기영(경기 남양주), 송영례(경기 광주), 송옥희(서울), 최이개(경기 안산), 김수호(서울), 정해곤(충남 아산), 김영웅(대전 유성), 박종호(전북 전주), 이길호(전북 전주), 김용선(전북 고창), 송기평(전북 정읍), 심재식(전북 정읍), 김형무(전북 정읍), 이정신(전남 장흥), 이정태(전남 장흥) 등 참여자 유족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2021년 말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신축되는 연수동, 방문자센터, 편의시설, 연구소, 전시실, 추모관을 비롯하여 야외 캠핑장, 기억의 들판, 참여자 추모공간 부지 등 공사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 연계 협의



2020년 8월 31일(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2023년에 열릴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잰버리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청소년들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문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집행위원장, 김미숙 전라북도잰버리콘텐츠팀장·담당사무관, 안석주 정읍시 성장전략팀장·홍진환 동학시설팀장·담당주무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정읍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공사현장 방문



2020년 9월 4일(금) 문화체육관광부(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정읍황토현전적(사적 295호) 일원에 조성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공사현장을 정읍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문하여 기념공원 조성 현황과 준공 이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상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황해숙·이상길·김중희·고경윤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왼쪽부터 증손녀 송영례,
손부 이채현, 손녀 송마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상옥의 손녀 송마지, 증손녀 송영례

Q 이번 호 『녹두꽃』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송상옥(宋相玉, 1867~1909) 님의 손녀 송마지, 증손녀 송영례 두 분과 참여자 분의 손부이자 송영례 선생님의 어머니이신 이채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증손녀이신 송영례 선생님께서 손녀이신 송마지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영례] 안녕하세요. 제 고모이신 송마지 선생님은 송 상자 옥자의 큰아들 송판철의 7남매 중 막내인데, 1942년생이시니까 올해 79세입니다. 저는 송 판자 철자 님의 셋째아들 송광호 님의 5남매 중 셋째인데, 1960년생으로 올해 예순 하나입니다.

Q 송영례 선생님께서는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직을 맡아 활동하고 계시죠? 유족회 활동에는 언제부터 참여하셨는지요? 그리고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영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활동을 시작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참여자와 유족등록을 받을 때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으로 계시는 정남기 선생님이 회장으로 애쓰셨고, 손주갑 선생님이 총무를 맡아 애를 쓰시던 때니까 대략 15년 전, 그러니까 2005년 그 정도일 것입니다. 처음 유족회 활동을 시작했던 때는 뭘 잘 모르니까 유족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연락을 해오거나 그러면 만나 제쳐두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한결같이 모임에 잘 참석하니까 부족한 제게 임원을 권유하여 지금은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증손녀 : 송영례

Q 송마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데지요? 아울러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어느 분이 추진하였는지요?

A [송마지] 부친(송판철)께서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새겨들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동학농민혁명 그게 뭘가는 잘 모르겠지만 조부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어려서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제 셋째오빠(故 송광호)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들고 조부님께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도 찾고 하여간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셋째오빠가 모은 자료들을 영례가 가지고 가서 서울시청에 신청하였습니다.

Q 송영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일상에서 사용하던 농기구를 직접 또는 변형시켜서 무기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이신 송상옥 참여자께서 직접 무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하여 전해들은 얘기가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영례] 아버지(故 송광호)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조부(송상옥)께서는 부여 가중리에서 태어나셨고, 재산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 갑오년 당시 증조부님은 27세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부께서 공주인지 부여인지 하여간 농민군이 사용할 창과 칼 등 무기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께 들은 얘기로는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때 많은 군자금을 대시고 젊은이들을 농민군에 가입하도록 모집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셨다고 합니다.

Q 참여자 송상옥 님은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에서 태어나 동학농민혁명 당시 공주, 부여 등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전투에선지 다리에 총상을 입어 한쪽 다리를 절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A [송마지] 조부님은 1894년 11월 우금치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총탄을 맞아서 부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전투 이후에 몇몇 곳으로 피신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고향 근처에 들어와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셨는데 묘를 대명천지에 내놓고 쓸 수가 없어 고향 선산에 모시지 못하고 고향 가중리마을과 가까운 초동마을(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로 추정) 길가 야산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 선산으로 묘를 옮겨왔는데, 이장할 때 외삼촌(송판철씨 부인의 남동생)이 조부님 유골 중 왼쪽 무릎아래 다리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Q 송마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서 어렵게 살아오셨을 텐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마지] 장남이셨던 조부님(송상옥)께서는 딸이 한 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손이 없으셔서 저의 부친(송판철)을 어릴 때 양자로 들이셨어요. 제 부친(송판철)은 고향 가중리에서 둘째까지 낳으셨고, 가중리 옆 외가가 있는 신성리(충남 부여군 규암면)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셋째부터 막내인 저까지 낳으셨다고 해요. 부친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7남매를 키우셨는데 먹고살기가 힘든 시절이라서 부친과 큰오빠(송창호)가 돈을 벌려고 부여 근처에 광산으로 일을 다녔대요. 큰오빠는 결혼을 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나중에는 철도 놓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일만했대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다행히 큰오빠(송창호)가 살아서 외가가 있는 신성리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6.25가 터지는 바람에 농사를 접고 돈을 벌려고 서울로 올라가 살게되었고, 둘째오빠(송동호)는 해방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순사보직 제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거절했답니다. 순사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셋째오빠(송광호)는 저희 7남매 중에 제일 아는 게 많았어요. 그 오빠가 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등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Q 참여자 송상옥 그분은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A [송마지] 조부님은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후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부대를 따라 논산, 전주방향으로 퇴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부님께서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후퇴하다가 자기가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동료들과 헤어져 이리(현재 전북 익산시) 근처 여산송씨 집성촌이 있는데 그곳 친인척 집에 몸을 숨기셨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숨어 있다가 상황이 잠잠해지자 고향인 부여군 가중리(충남 부여군 은산면)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도 관헌들의 끈질긴 추적과 탐색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눈총도 따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못 들어오신 거지요. 한쪽 다리까지 없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혹시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본가에 알리지도 않고 식구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하시다가 1909년 11월 3일(양력) 부여군 초동마을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조부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Q 송마지 선생님, 조부님은 현재 부여군 가중리 선산에 모셔져 있지요?

A [송마지] 저희 태어나기 전부터 친인척들은 조부님(송상옥)이 가매장 상태로 초동마을에 묻혀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 아버지(송판철)께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가매장 상태로 두는 것은 후손의 도리가 아니다면서 남의 이목을 피해 밤에 양지바른 곳으로 이장하고, 비석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장을 하고 난 후 1980년쯤인가?! 그 자리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다시 묘를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부여군 가중리 선산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장을 2번이나 한 것이지요.



Q 중손녀이신 송영례 선생님은 2007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참여자 및 유족 등록 관련 조사를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살고 계셨지요?

A (송영례) 참여자 및 유족등록을 추진하던 무렵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부여 신성리에서 살고 계셨어요. 5남매 중 4남매를 신성리에서 낳으셨고 막내는 서울에서 69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1966년엔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다니면서 88년도에 결혼을 했고, 마포구에서 살았어요. 그 뒤 아버지께서는 송파구로 이사하셨고, 그곳에서 2000년 10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하여 제가 어머니(이채현)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Q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작년과 올해 정부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읍황토현전적(사적 295호) 일대에는 완공목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늦었지만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이 힘 있게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송영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갑오년의 역사가 빛을 보게 되어 할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다소나마 덜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지 지난 해에는 특별법 제정 이후 15년 간 결실을 보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달력에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이렇게 글자가 박혀 나오니까 정말로 후손으로서 뿌듯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서 이런 것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Q 빠트린 얘기가 있거나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A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임금을 핍박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니까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섰겠습니까?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숙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목숨을 기꺼이 바친 동학농민군은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후손들이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로 모실 수 있도록 서훈이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 가슴깊이 새겨들고,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전라도 삼례는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를 이루는 동학교단이 주도한 대중적인 정치집회인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1892.11.)가 이루어진 곳이자 1894년 가을 일제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의의병전쟁의 기치를 올린,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단행된 곳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1996년 10월 26일 완주군 삼례읍 입구 한내 강둑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기념비가 서 있는 곳은 만경강 상류 한내 천변으로 갑오년 당시 ‘찰방다리’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



설치조형물 / 쇠스랑을 움켜쥔 동학농민군의 팔뚝



설치조형물 / 추념의 장



설치조형물 / 동학농민군 출진상

삼례봉기 역사광장은 완주군과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민관협력을 통해 조성하였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차원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는 일제강점기 때 거세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민족운동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사적 의미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해 기금마련에 힘을 기울여 2001년에는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다. 이를 종자돈으로 완주군과 협력하여 2003년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을 완공, 10월 10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일을 기해서 제막하였다. 쇠스랑을 움켜쥔 동학농민군 팔뚝을 비롯하여 '역사와 나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설치작품 '추념의 장'과 '동학농민군 출진상' 등으로 구성된 역사광장은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삼례역참 터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53 / 삼례동부교회



삼례역참은 1892년 11월(음력)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동학(東學) 창도자 수운 최제우 신원(伸冤)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열린 곳이다. 이때 동학교단의 서병학(徐丙鶴)이 '동학교조 최제우의 신원 회복과 포교의 자유, 지방관들의 동학교도들에 대한 침탈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전라우도(全羅右道) 고부의 전봉준(全琫準)과 전라좌도(全羅左道) 남원의 유태홍(柳泰洪)이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렸다. 집회를 통해 교조신원(포교의 자유)은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으나 지방관들의 침탈을 금지하라는 전라감사의 감결이 각 읍으로 내려진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이곳은 1894년 6월 21일(음력)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을 일삼자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은 1894년 9월 10일(음력) 삼례로 나와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동학농민군에게 척왜(斥倭)를 위해 봉기하라는 통문을 돌려 반일의병전쟁의 기치를 본격적으로 올린 곳이다. 당시 삼례역참은 없어졌고, 현재 그 자리에 삼례동부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대둔산 전경

노령산맥 줄기를 따라서 충청남도 논산시와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이어지는 대둔산은 높이 878m로 천여 개의 암봉(岩峰)이 6Km가량 늘어선 암벽산이다. 대둔(大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곳은 산세가 웅장하고 가파른 절벽이 많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1894년 11월 7~8일(음력)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관군 등의 연합부대를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동학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 주력부대는 남으로 후퇴하면서 논산황화대, 원평구미란, 태인, 전남 장흥 석대들, 충북 보은 북실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고, 흩어진 잔여세력들은 깊은 산속 등지로 숨어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충남 금산(錦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최공우(崔公雨) 접주와 잔여 농민군 3~40여 명이 대둔산으로 숨어들었고, 일본군과 관군이 이들을 토벌하려고 내려오자 대둔산 정상(頂上)인 마천대(878m) 남서쪽에 위치한 형제바위(720m)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1895년 1월 24일(음력)까지 약 50여 일 동안 항전하였다. 이들은 1985년 1월 24일(음력)까지 항전하다가 이곳에서 모두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



대둔산 향전지 / 형제바위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향전 기념비

이곳 대둔산 향전지는 1999년 원광대학교 사학과와 박물관의 조사·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후 2001년 10월 (사)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김정호)에서 형제바위가 올려다 보이는 등산로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향쟁 전적비'를 건립하고 매년 11월 말 대둔산에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최후까지 저항하다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례를 거행해오고 있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2020년 11월 09일 11시

장 소 변호사김정호법률사무소

Q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통권 42호) 2021년 신년호 지역대담에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하 완주기념사업회) 김정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먼저 『녹두꽃』 독자님들께 본인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반갑습니다. 2014년부터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담 고문변호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문화교육진흥원 원장,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Q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회장님 고향이 삼례이지요? 어렸을 적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알고 계셨는지요?

A 네, 제가 태어난 곳이 완주군 삼례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주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은 2014년 이전까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삼례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그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인가? 우리 지역 선배이시기도 하고, 완주기념사업회 창립 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고(故) 이민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완주군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후 고향 삼례에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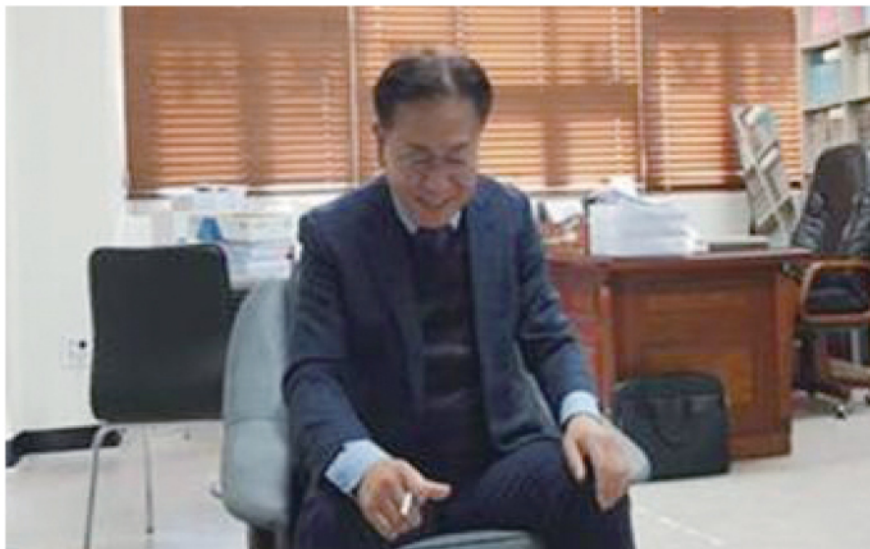
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완주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제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Q

네, 이민교 선생님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주기념사업회가 창립을 준비하던 1996년 하반기부터 이민교 선생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당시 전주시 금암동 원광 신용금고 2층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왜곡·축소되면서 그 위상과 의미가 사라져버린 동학농민군 재기병(再起兵), 그러니까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 10월 26일 삼례입구 한내 독 위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민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기념비를 건립하면서 완주지역 여론이 무르익어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96년 11월엔가? 완주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지요. 창립 때 이민교 선생님이 회장을 맡으셨고, 당시 삼례수협에 근무하시던 이원영 선생님이 사무국장을 맡으셨지요.

A

네, 얘기 들었습니다. 초창기 때 이민교, 이원영 두 분이 삼례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당시 이사장 한승헌)에서 마련해준 사업기금 5천만 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을 조성하는데 이분들이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힘을 보탰다고 알고 있습니다.



Q

맞습니다. 완주군 신금리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은 완주군과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완주군이 동학농민혁명 109주년이던 2003년 10월 10일 역사광장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역사광장은 쇠스랑을 움켜쥔 농민군의 팔뚝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설치물을 비롯하여 대동의 장, 추념의 장, 동학농민군 출진상 등으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역사광장에서 매년 10월 삼례봉기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A

네, 1997년부터 매년 10월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를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체로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 범 군민 걷기대회, 청소년 역사탐방 등으로 진행됩니다.

Q

삼례는 동학농민혁명 이태 전인 임진년(1892) 11월 초에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인 동학교단의 교조신원운동이 열린 곳이고, 1894년 9월(음력) 2차 기병이 단행된 곳입니다. 나이가 우금티전투 이후 잔여세력이 피신하여 1895년 2월까지 항전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삼례는 이렇듯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맞습니다. 전라도 삼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굵직한 사건들이 많지요. 동학교단이 주도하여 임진년(1892) 11월 1일부터 한 달 가까이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이 열렸습니다. 동학(東學)을 사교(邪敎)로 몰아 창도자인 수운 최재



우 선생을 처형한 것은 억울하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동학교도에 대한 관의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삼례집회는 조선정부에게 동학의 공인을 요구한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4년보다 2년이나 앞서 삼례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네, 회장님 말씀처럼 역사학계는 1892년 11월에 전개된 동학교단의 교조신원운동을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로 인식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전라감사에게 집회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역할을 전라좌도 남원의 류태홍, 전라우도 고부의 전봉준이 자원하여 나섰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례집회의 맥락이 이듬해인 계사년(1893) 2월 광화문 복합상소, 3월 충청도 보은집회와 전라도 금구·원평집회, 11월 고부의 사발통문거사계획으로 이어졌고, 1894년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 무장기포, 백산대회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892년 11월 삼례집회가 열린 것과 1894년 여름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폭거를 자행하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삼례에서 재기병을 단행한 것이 우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삼례가 역참이 있었던 곳으로 서울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이 재기병 장소로 선택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겠지만 이전에 삼례집회를 통해 기반이 다져진 곳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상당이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2000년대로 들어선 후 완주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게 전까지 동학농민혁명과 삼례가 이렇게 깊이 관련된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낮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완주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난 이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삼례와 동학농민혁명 관련성에 대해 2000년대 이전에 깊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회장님께서 면목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면목 없어 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웃음) 갑오년 겨울 공주 우금티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에게 크게 패한 후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으로 빠져들었고, 해방이후에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부침의 연속이었잖습니까? 다행스럽게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크게 전환되었지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참다못해 일어난 민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A

맞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사학자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일제의 국권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이고 전 민족적으로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

다르게 말하면 반일의병전쟁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철저하게 거세되었지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반일 민족항쟁으로서의 의미는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진 채 그저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의한 전라도 서남해안지역의 사건으로 축소하고 왜곡되어왔지요. 이런 왜곡과 축소는 해방이후에도 세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된 동서냉전체제 구축시기에 민족내부의 극심한 좌우대립과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바로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의 깊이와 그 폭이 열악했었습니다. 어쨌거나 1996년 삼례 들머리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런 흐름 속에서 완주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현재 제가 회장직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덜 염치없기는 합니다.(웃음)

Q

네, 회장님. 회장님께서서는 완주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은 이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삼례봉기 기념대회는 물론이고 완주군 대둔산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향전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계시죠? 이점에 대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

1895년 2월까지 대둔산에서 항전하다가 희생된 농민군을 위령하는 추모제례를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모시고 있습니다. 1999년 원광대학교 사학과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대둔산 향전지 '형제바위'는 아주 높고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고 대둔산 등산로 길목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 매년 기념비 앞에서 추모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향전 일자에 맞춰 매년 2월에 모셨는데 너무 추워서 5년 전부터는 11월 중 주말을 기해 등산객 등도 함께 참여하는 열린 형태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일제에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군과 관군



에게 저항한 분들의 높은 정신을 후손들이 마땅히 기리고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오늘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부침의 연속이었던 한국 근대사 초입에 동학농민군의 고결한 희생이 없었다면 정말로 우리나라 근대 초입의 풍경은 얼마나 적막하고 황폐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Q

네,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찡해집니다. 삼례를 비롯하여 완주지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많지요? 완주지역 유적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로는 제일 먼저 1892년 삼례집회와 1894년 삼례봉기가 열렸던 삼례역참 일대를 들 수 있습니다. 적개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인 집회의 장소를 특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례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범위를 좁혀본다면 현재 삼례동부교회가 세워진 곳이 당시 삼례역참이 있던 곳이라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완주지역 유적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대둔산 동학농민군 항전지가 있고,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무기를 보관한 장소이기도 했던 완주군 소양면의 위봉사 등이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삼례봉기 역사광장 앞에 있는 완주군립도서관 마당에 당시 지방 수령들의 공적비나 영세불망비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 <이도재 영세불망비>가 있습니다. 이도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감사 김학진에 뒤를 이어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도재가 갑오년 12월 1일 태인현 중송리에서 체포된 김개남 장군을 서울 압송 후 재판을 거치는 절차를 무시하고 전주에서 참수형(斬首刑)을 집행한 사람이지요.

Q

완주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느낀 점이 참 많으실 텐데, 기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현재화와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점들에 힘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너무 극심하게 왜곡되고 축소된 탓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반란사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청

소년들에게 우리 근현대사를 재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서 발원한 우리나라 근대 최초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고, 삼례봉기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전개된 전국적이고 전민족적인 반일의 병전쟁으로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정신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인터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빠트린 얘기 혹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갑오년의 역사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재정립하여 전국화를 이루고,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재화를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서남해안의 지역의 역사로 인식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본군에 대항하여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에도 보다 힘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Q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녹두꽃, 다시 피다

■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전국 역사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루어져 오다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동학농민혁명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전문가 강의로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세계사적 의미(문명학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알기(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과 동학(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동학농민혁명과 역사교육(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황토현전적(사적 295호)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을 비롯하여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봉준장군동상, 백산봉기 터, 만석보 유지비, 전봉준 유적(고택), 전봉준 단소, 사발통문 작성지,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 등 전북 서해안지역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념재단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로 나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농민군 되어보기', '녹두씨앗 심기', '팍업카드 만들기', '입체퍼즐 만들기', '도전 골든벨', '보드게임', '유적지 답사' 등으로 다양하다.

고창군 성내중학교(2020.10.6.)



남원시 운봉중학교 (2020.10.15.)



군산시 군산고등학교 (2020.10.17.)



전주시 우석고등학교 (2020.10.23.)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2020.10.24.)



전주시 전주중학교 (2020.10.27.)



군산시 옥구중학교 (2020.10.29.)



전주시 전주신흥고등학교 (2020.10.31.)



김제시 종정초등학교 (2020.11.04.)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다시 피는 복두꽃’은 전국 중·고교생과 일반인(성인·가족),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복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파랑새를 찾아서’, ‘황토현전적지에서 하루’, ‘꿈을 품은 박물관(자유학기제)’ 등으로 진행하였다.



-

-

-
- A group of approximately 20 people, mostly young adults, are posed behind a long white banner. Many are wearing face masks and making hand gestures such as peace signs and heart shapes. The banner features the following text:
- 장성문화재단** (Jangseong Cultural Foundation)
 - 2020년 문화재청 장성문화사제 사업** (2020 National Cultural Heritage Jangseong Cultural Saje Project)
 - 자유와기제** (Freedom and Initiative)
 - 꿈을 품은 박물관** (Museum Embracing Dreams)
 - 주최 | 후원** (Organized by | Supported by)
 - 장성문화재단 (Jangseong Cultural Foundation)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전라북도 (Jeollabuk-do)
 - 장흥읍시 (Jangheung-eup-si)

- 시행일 : 2020. 10. 23.(금)
- 참가자 : 28명(전북 남원시 하늘중학교)

꿈을 품은 박물관



- 시행일 : 2020. 11. 6.(금)
- 참가자 : 33명(전북 군산시 옥구중학교)

파랑새를 찾아서



- 시행일 : 2020. 11. 19.(목)
- 참가자 : 32명(전북 정읍시 이평초등학교)

파랑새를 찾아서



- 시행일 : 2020. 11. 20.(금)
- 참가자 : 10명(전북 정읍시 덕천초등학교)

• 경북 상주시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상주동학농민군 위령제 및 제7회 동학문화제



위령무(慰靈舞)



위령제례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대표 김봉기)는 2020년 10월 16일(금) 상주시 왕산역사공원에서 제7회 동학문화제와 함께 126주년 동학농민군 위령제가 개최하였다. 1894년 여름, 일제는 국권침탈의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청일전쟁 준비를 위해 부산에서 낙동강 줄기를 따라 상주, 문경, 충주 등을 거쳐 병참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상주지역 동학농민군은 반일의병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 1894년 9월 22일경(음력) 상주관아를 점령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과 관군 등 연합부대가 상주성을 공격하여 퇴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붙잡혀 상주성 앞 태평루 등지에서 처형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창립된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이후 매년 10월 위령제를 모셔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들의 제례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추모 제례를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2020년 동학농민혁명 공주 시민 토론회



2020년 10월 22일(목)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대표 신경미)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 청목관 청화홀에서 '동학농민혁명 공주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공주'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지정'과 공주 우금티(우금치)전적, 조성환(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의 '동학사상의 현대적 계승',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의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공주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했을까?' 등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2020년 공주 우금티전적 알림터 개관식 및 제27회 우금티 추모예술제



우금티전적지 알림터



웅담검무(동학의 칼춤)

2020년 10월 31일 공주우금티전적지에서 공주시 주최로 <우금티전적 알림터> 개관식이 열렸다. 이어서 우금티 고개마루에서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신경미) 주최로 '우금티! 동학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제27회 우금티 추모예술제가 펼쳐졌다. 우금티전적 알림터 개관식 및 우금티 추모예술제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을 비롯하여 김정섭 공주시장,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김동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목 예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황의대 (사)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장명진 충남동학농민혁명관련단체 협의회 대표, 박돈서 천도교 공주교구장 등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제15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 제향 및 제1회 동학농민혁명 남원대회

남원동학농민기념사업회(대표 안경엽)는 2020년 10월 24일(토)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흥기 대접주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병옥(남원기념사업회 고문)의 집례로 '제15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 제향'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어서 열린 제1회 남원동학농민혁명 남원대회(南原大會)는 남원농악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검무(劍舞), 시 낭송극 공연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린(전라북도의회 의원),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심국보(천도교 신인간사) 등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관계자와 남원시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하였다.



제15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 제향



제1회 동학농민혁명 남원대회

2020년 남원 동학농민혁명 아카데미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20년 08월 4일(화)부터 10월 13일(화)까지 '남원대회와 김개남장군, 남원동학농민혁명사'라는 주제로 아카데미(총 9회)를 운영하였다. 아카데미는 김개남장군의 민족적 유토피아와 남원(강효숙), 동학·동학사상·동학농민혁명(윤석산), 21C 동학의 의의와 남원동학사(최순영), 김개남장군 활동과 남원대회(박준성), 남원동학의 미래(황의동), 남원동학혁명군의 활동상(이병규), 동학농민혁명에서 김개남 장군과 농민혁명군(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현황과 미래방향(원도연) 등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남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2020년 11월 13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남원시 후원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원아이쿱생협 나비 소극장 3층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신순철(前 원광학원 이사장) 원광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제우의 동학 개념 창출과 남원'(조성환), '김개남과 남원대회'(강효숙), 동학농민군의 성격과 방아치전투(이병규),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민족운동으로의 흐름(유바대),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기념사업의 방향'(원도연)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윤석산(한양대 명예교수),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병옥(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황의동(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제126주기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념식



동학혁명군위령탑



극단 DOMO의 퍼포먼스로(1894년의 역사재현)

2020년 10월 23일(금) 홍천문화원(원장 박주선) 주최로 강원도 홍천군 자작고개전투지 '동학혁명군위령탑'에서 '제126주기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되었다. 희생자 영령을 위무하는 식전행사와 함께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된 추모식에 이어 추모 음악회, 동학농민혁명 주제 연극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필홍(홍천군수), 신도현(강원도의회 의원), 신영재(강원도의회 의원), 박영록(홍천군의회 부의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서석면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1894년 6월 21일(음력) 일본군이 경복궁 무단점령한 후 친일내각 수립, 청일전쟁을 도발하자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재가병(再起兵)을 단행하자 차기석 대접주를 중심으로 강원도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도 일제의 국권침탈 저지에 합류하고자 봉기하였다. 이를 저지하고자 맹영재 민보군 등이 출동하여 1894년 10월 22일(음력) 홍천군 자작고개에서 동학농민군과 관군·민보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800여 명이 희생당했다.

제30회 태안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태안동학농민혁명 상황극 / 백화산 추모탑

2020년 10월 29일(목)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산 '동학혁명군추모탑'에서 제30회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대표 최기중) 주최로 식전행사와 추모제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주제 상황극 등으로 진행되었다. 추모문화제에는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정남기(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 문영식(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을 비롯하여 가세로(태안군수),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송낙문(태안군의회 부의장), 김기두·김종욱·김영인·전재욱(태안군의회 의원), 박인준(천도교 종무원장), 진동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였다.

2020년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 태안 추계학술대회



2020년 11월 6일 태안군(군수 가세로) 주최, 동학학회(회장 최민자) 주관으로 '동학농민혁명과 충청도 태안'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혜준 공주대 명예교수의 충청도 내포(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성격이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태안지역의 동학포덕과 조직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임형진), '동학농민혁명 희생자와 홍주 의사총 관계 연구'(성주현), '목암 이종일과 동학, 천도교, 그리고 3.1독립만세운동의 연속성'(안외순), '태안 동학농민혁명사의 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채길순), '1960년대 이후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선양)사업 분석과 현대적 의의'(문영식)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020주기 김개남 장군 추모제



2020. 10. 31.(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동학농민혁명정읍시유족회(회장 심재식), 김개남장군 추모사업회추진위원회(회장 손주갑) 세 단체 공동주최로 김개남장군 묘역(전북 정읍시 산외면)에서 제126주기 김개남 장군 추모제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그대의 넋, 꽃으로 피어라'를 주제로 열린 추모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개회사, 추모사, 고전문 낭독, 추모제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수칙을 준수하면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호영(김개남 장군의 고손자), 심재식(동학농민혁명정읍시유족회장)을 비롯한 참여자 후손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김용선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승범·김재오 정읍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여 김개남 장군을 비롯한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2020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주최하고, (주)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한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가 2020년 1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김익두 전북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도쿄대 명예교수),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방민호(중국 연변대 교수), 조재곤(서강대 교수), 유바다(고려대 교수), 김원호(아트코어 굿마을 대표), 김탁(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신순철(원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제1회 논산시민 평화대동 한마당 - 논산동학마당, 자료전·토론회·주제공연



2020년 11월 7일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김선덕) 주최로 제1회 논산시민 평화대동 한마당을 펼쳤다. 논산시민공원과 논산 한국지속가능문화교육센터 등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1부로 진행된 논산 동학한마당은 논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전시회, 토론회 등이 추진되었고, 논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특성을 살린 '그리운 소토산 해방구'라는 문화예술공연이 올려졌다.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희생자 추모제례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는 2020. 11. 22(일) 10시부터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전북 완주군 삼봉로)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행사를 거행한 후 대둔산으로 자리를 옮겨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에서 대둔산 항쟁 희생자 추모제례를 거행하였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반일의병의 가치를 올린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고자 매년 10월에 기념대회를 추진하였고, 대둔산 항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례는 매년 11월에 추진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삼례봉기 기념행사와 대둔산 항쟁 희생자 추모제례를 같은 날 거행하였다.

2020년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배의명)은 2020년 11월 27일 부안군청 대회의실(5층)에서 '2020년 부안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중)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개회식과 함께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었고,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성주현 숭실대 교수), 부안의 의병전쟁 연구 현황과 과제(김건우 전주대 교수), 부안의 독립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임혜영 군산대 강사), 부안의 민족운동사 정립과 활용 방안(윤상원 전북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홍성덕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선아(전주교대), 장순순(전주대), 이현진(전북대), 박정민(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문찬기 부안군의회회장 등이 참석하여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를 되돌아보았다.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다. 동학농민혁명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기념관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기획전시실과 어린이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어린이 교육체험공간으로 녹두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실·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관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객 이용 제한 및 사회적 거리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전북 임실군에 소재한 대리초등학교(18명)를 비롯하여 고창북중학교(80명), 원광대학교 제128학군단(62명),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16명), 원광대학교학군단(60명), 광주광역시북구통일행사위원회(20명), 정읍시한솔초등학교(30명), 한국건설청산업재단(30명), 정읍한솔초등학교(100명, 3차), 조선대철학과(50명) 등의 단체가 방문하였다.



① 임실대리초등학교(10.22)

② 고창북중학교(10.22)

③ 원광대학교 제128학군단(10.23.)

④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교직원(10.27)

기념관 방문단체



5 원광대학교학군단(10.30.)

7 정읍한솔초등학교(11.05.)

9 정읍한솔초등학교(11.06.)

⑥ 광주광역시 북구통일행사위원회(11.01.)

⑧ 한국컨설팅산업재단(11.05.)

☐10 금성노동조합 호원지회(11.07.)

기념관 방문단체



11 전주덕진중학교(11.07.)

13 여행자클럽(11.13.)

12 삼육고등학교(11.10.)

14 정음한솔초등학교(11.18.)



15



16



17



18

- 15 조선대철학과(11.18.)
- 17 충남 태안군문화해설사(11.19.)

- 16 고창북중학교(11.18.)
- 18 한국종교연합회원(11.19.)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8월 26일	정읍시사	정읍, 동학농민혁명정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8월 29일	KBS NEWS	동학혁명 '편하·왜곡'하는 유튜브 영상물 '몰의'
9월 7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국역총서 12' 발간
9월 10일	전북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지도자 양성교육
9월 13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태동 30년사 대기록
9월 19일	시사매거진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9월 28일	한국일보	자주와 개혁, 민중의 꿈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10월 7일	광남일보	동학혁명 성지고창에 전봉준장군 동상 세우자
10월15일	쿠기뉴스	충무교육원, '지역 동학농민혁명 탐방 과정' 개최
10월21일	전라일보	2020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10월21일	대전일보	공주시, '우금티전적 알림터'31일 개관
10월23일	Queen	제126주기 동학농민혁명 추념식 개최
10월25일	동양일보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시민 토론회'개최
11월 2일	새전북신문	고창 무장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100만원 기탁
11월 2일	국제뉴스	원광대, '주관'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학술대회...비대면 개최
11월 3일	새전북신문	고창군,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성금 모금 잇따라
11월 3일	KBS NEWS	"충남은 동학혁명의 중심지"...새로운 조명 시도
11월 4일	국제뉴스	원광대 총장, 학군단과 함께 동학혁명 전·사적지 탐방
11월 8일	신아일보	태안군, 126주년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전국 규모 학술대회' 열어
11월11일	프레시안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전라북도 건축문학상 금상 수상
11월16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운동의 효시이다
11월16일	뉴시스	'동학농민혁명 남원대회'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11월18일	프레시안	동학농민혁명 제정 1주년 국제학술대회 열린다
11월24일	뉴시스	부안군,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학술대회 27일 개최
11월25일	프레시안	정선 동학농민군 역사비 제막
11월26일	서울신문	신분 철폐·조세 개혁... 동학농민혁명, 근대 민주주의를 실천하다
11월30일	뉴스핌	'1871년 영해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출범...역사적 가치 재조명
12월 4일	새전북신문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역사·문화 자원화 국비 확보 -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 추진
12월 4일	경향신문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연고권 '전주에 있다'
12월 6일	충청일보	청산면 문바위골서 동학영령 진혼굿
12월 8일	프레시안	동학농민혁명 배경·전개 과정을 한 눈에...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발간
12월 8일	한국일보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발간
12월 10일	정읍시사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잇는 국제학술대회 성료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 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 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 수 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8-289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재 단